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중국을 방문하신 소식을 세계 언론들 광범히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신 소식을 8일부터 11일까지 세계 언론들이 련일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두 나라 지도자들께서는 친선적이고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중조관계와 공동의 관심사로서의 문제들에 대해 깊이있는 의견을 교환하시였으며 중요한 공동인식을 달성하시였다. 쌍방은 중조관계가 새로운 시기에 끊임없이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도록 추동하며 조선반도정세를 옹호 관리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보장에 공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고 전하였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네 번째로 중국을 방문하신데 대해 지적하고 《국제사회는 조선반도문제해결을 위한 평화적인 대화를 기대하고있다》. 《조선반도문제에 정

치적해결은 보기 드문 역사적기회를 맞이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중국의 중앙TV방송, 《단동일보》, 홍콩 《대공보》, 《문화보》, 봉황위성TV방송, 인민망, 환구망, 로씨야의 따쓰통신, 리아 노보스피 통신, 인페르락스통신, 신문들인 《모스콥스키 콤포블레즈》, 《폼페르산트》, 로씨야 24TV방송, 《RT》TV방송, 예호 모스크비방송, 몽골의 몬짜메통신, 인터넷 통신 잡로, 라오스신문들인 《비엔티안 타임스》, 《비엔티안 마이》, 인디아의 신문들인 《오우선 뉴스 포인트》, 《힌두스탄 타임스》, 《타임스 오브 인디아》, 《인디언 익스프레스》, 인디아-아시아통신, ANI통신, 유엔아이통신, NDTV방송, 파키스탄신문 《더 인터 내셔널 뉴스》, 네팔의 신문 《라이징 네팔》, 주제 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

기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 《주체-네팔》, 싱가포르 신문들인 《스트레이츠 타임스》, 《련합잡보》, 일본의 《도요신보》, 쿠웨이트의 쿠나통신, 벨라리아의 주요 신문, 방송들, 프랑스신문 《몽드》, 우간다신문 《더 뉴 비전》을 비롯한 광범한 세계언론들이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중국을 방문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 중국방문》, 《조선과 중국 많은 문제에서 견해일치를 보다》 등의 제목들로 우와 같은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하였다.

한편 로씨야의 100여개 언론들과 꾸바의 브렌사 라피나통신, 수리아의 사나통신, 이란의 통신, 신문, 방송들, 인디아의 인터넷통신 보이스 오브 밀리언츠, 캄보자국가TV방송, 싱가포르 TV 《아시아소식통신》, 타이완 신문 《방콕 포스트》, 인도네시아의 인터넷신문 《렘보》, 만파신문 《더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만파》, 일본의 교도통신, 체스코의 체짜가통신, 인터넷통신 노빈끼, 프랑스의 AFP통신, 도이칠란트의 데페아통신, 영국의 BBC방송, 에티오피아의 화나통신, 에리트레아통신, 민주공고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미국의 AP통신, UPI통신, 신문 《워싱턴 포스트》, 베네수엘라의 벨레루르TV방송, VTV방송을 비롯하여 평양을 출발하신 소식, 중국방문을 마치고 조국에 돌아오신 소식을 널리 보도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 인민사랑의 역사를 수놓아가시는 자애로운분 국제사회계가 열렬히 칭송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열사부름으로 찬미받는 인민의 나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라원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국제사회의 칭송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방글라데시신문 《데일리 포크》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김정은 최고령도자의 현저지도는 인민복무의 현저지도이다.

그에게 있어서 현저지도는 단지 현실로해만이나 아니라 대중속에 들어가 인민의 진실한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의사를 반영한 정책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끊임없는 현저지도에 의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날로 향상되고있다.

때문에 조선인민은 최고령도자의 현저지도를 가리켜 《인민을 위한 현저지도》, 《인민행현저지도》라고 부르고있다.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카라치지부 서기장은 이렇게 언급하였다.

김정은각하는 인민사랑의 역사를 수놓아가시는 자애로운분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사랑하시는 그의 위대한 품이 있기에 혈연의 정으로 맺어진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는 더욱 굳건해졌다.

또한 나라에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고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꽃피는 사회주의선경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에리트레아 신문 《알 아호바르 알 마싸이》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정치철학은 종교나 사회주의를 출발점으로 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인민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도 제시하시였다.

인민의 존재가치를 이처럼 신성시하고 절대적으로 떠올리신데 그의 정치철학의 특징이 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인민을 위한 열사부름정치철학의 가장 철저한 구현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연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김정은각하는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은 인민사랑이며 이것은 정치활동의 최고원칙, 최상의 목표로 되었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김정은각하는 정도에 조선에서는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공고공화국 보건 및 인구상은 조선에서는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구하고있다, 마시평스키장만 보아도 그것을 알수 있다, 인민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는 이처럼 멋진 대중체육봉사자지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고 말하였다.

로씨야의 인터넷홈페이지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런 글을 올렸다.

김정은최고령도자는 매우 겸손하고 부드러운 분이시며 아이들을 매우 사랑하는 분이시다.

그이의 혁명활동을 담은 영화들을 보면 인민들의 인신도 허리굴려 받아주시고 언제나 미소를 지으시며 허물없이 대화를 나누시는 자애로운 모습을 비울수 없다.

평범한 사람들의 집을 찾은 시어사도 아이들에게 그림그리는 방법도 차근차근 가르쳐주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영상을 비움스라면 국가령도자시라기보다 한집안의 가장처럼 느껴진다.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시어 조선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

## 조국소식

### 새로운 생물활성비료 《갱생1》호 개발

최근 농업연구원의 10월7일연구소에서 새로운 생물활성비료 《갱생1》호를 개발하였다.

새로운 생물활성비료는 고효능 활성액체비료로서 농작물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보충하여주어 농작물이 튼튼하게 자라게 할뿐 아니라 수확을 높일수 있게 한다.

이미 농업생산에 이바지할수 있는 여러가지 성장촉진제와 아미노산미량원소비료 등이 개발되었지만 어느 한두가지의 원소에만 국한되어있다보니 종합적인 생물활성비료로는 되지 못하고있었다. 하여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종합적인 생물활성비료를 개발할 목표를 세우고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생물활성비료를 리용하여 종자처리와 일부분을 생육시기별로 특성에 맞게 하면 얼마든지 알곡수출을 높일수 있으며 공과물과 남작물에 적용하였을 때 수확량이 훨씬 높다는것을 확증하였다.

지금 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생물활성비료의 성능을 보다 개선하여 알곡수출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데 적극 이바지하기 위해 연구입사사업을 즐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생산성과 련일 확대

굴지의 견제생산기지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가 중산투쟁으로 들쭉고있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적로를 열어나갈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전투적호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상원로동계급이 첫날부터 실적을 부쩍 올리면서 련일 생산계획을 100.5%로 수행하고있다.

집단지력과 경쟁열풍을 고조시키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는 한편 능숙한 조직자, 완강한 실천가가 되어 결련 문제들을 풀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는 일꾼들의 사업기풍은 그대로 중산투쟁과 이어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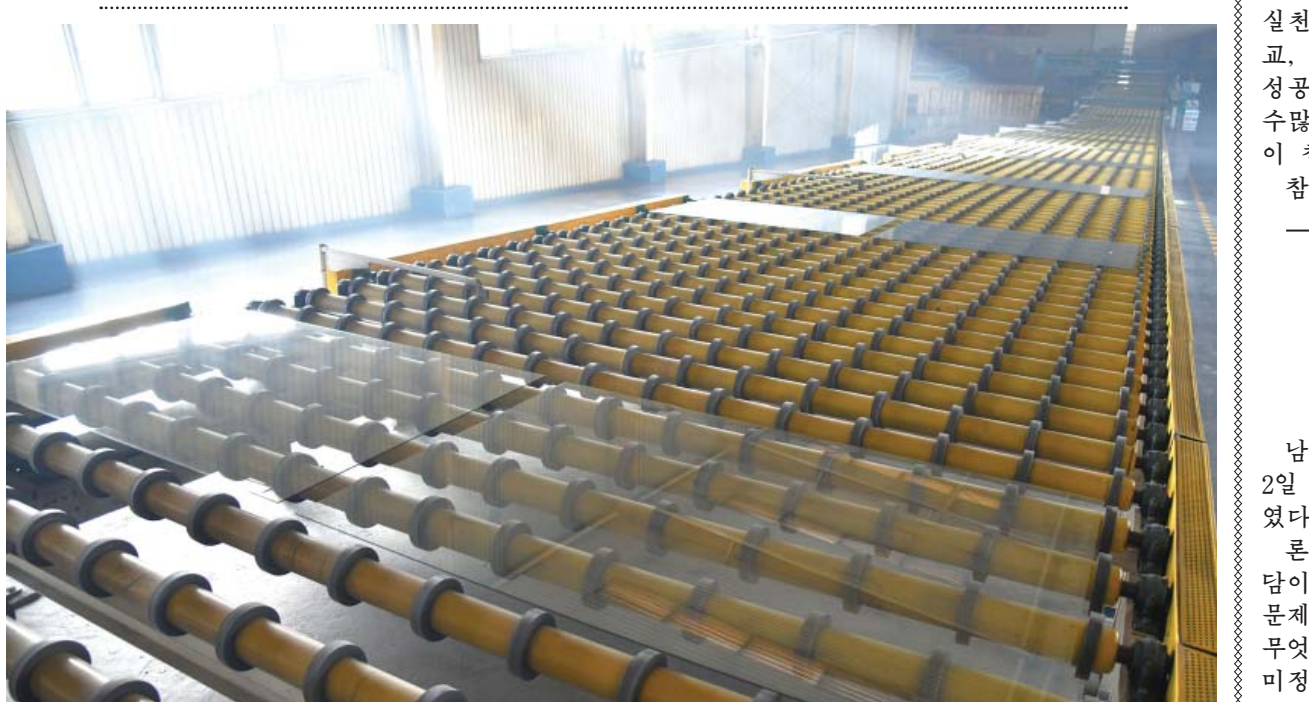
모체공장의 여러 단위들이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중앙조종실에서는 연료와 전기 등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생산을 늘이기 위해 원료투입으로부터 출하에 이르는 생산의 전 과정에 대한 조종을 보다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삼지연전역을 비롯한 대건설전투장들에 세멘트를 원만히 보장할 일념안고 소성직장의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은 소성로의 생산능력이 높아진데 맞게 로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질 좋은 크링카를 생산보장하고있다.

조합원료, 분탄직장에서는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분쇄설비들을 만가동제출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는 일꾼들의 사업기풍은 그대로 중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날마다 계획을 초과완수하고있다.

원료, 연료보장을 맡은 련합기업소상하 단위들에서 생산을 적극



대안신선유리공장에서 판유리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 실천적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한다

격동적인 사변들로 가득찬 지난해의 귀중한 성과들에 토대하여 오늘 우리 민족은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진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북남사이의 군사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드는것은 온 겨레의 막을수 없는 지향이고 민족의 삶과 통일번영의 밝은 미래를 위한 중차대한 문제이다.

하기에 공화국은 새해 정초에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확고부동한 림장과 의지를 다시금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공화국은 항시적인 전쟁위기에 놓여있는 조선반도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끝장내고 군사적화해와 평화변영의 시대를 열어놓을 결심밑에 지난해 정초부터 북남관계의 대전환을 위한 주동적이며 과감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북남사이의 군사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의미있는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북과 남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리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리행하며 북남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합의서의 리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부러움방지를 위한 항시적인 련계와 협의의 리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북남장령금군사회담들도 진행되어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서 나서는 제반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였으며 공동보도문도 채택하였다.

북남사이의 군사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군사적긴장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들을 그만두고 역사적인 북남선언들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성실히 리행해야 한다.

조선반도에 더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담아 채택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북남사이에서 무력에 의한 동종상쟁을 종식시킬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서 참으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지금은 조선반도문제에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고 말로만 웨칠 때가 아니다.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대로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평화통일로 우리 민족의 전성기를 열어나갈것을 선언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서울에서 열린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 신년회를 가지고 올해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대토를 열어나갈것을 선언하였다.

신년회에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여성분부, 민중당, 친노동, 금강산기업인협의회, 동성공업지주기업인협의회 등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지난해 민족이 70여년동안의 분열과 대결을 끝내고 되돌릴수 없는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로 들어섰다고 하면서 민족주의의 원칙에 따라 우리 민족이 힘을 모은다면 이루지 못할것이 없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2019년은 평화와 번영, 통일의 대토를 활짝 열어 그야말로 모든 겨레가 만나고 어울리며 힘을 합치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력사는 새로운 높이의 운동으로만 이룰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남관계발전을 가로막는 내의 방해물 무력화하고 분열적책을 청산해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오는 30일에 개최되는 금강산 새해맞이대모임을 각계각층과 함께 개막하며 그를 시작으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지지하고 리행을 바라는 광범한 대중의 힘을 모아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에 북남사이의 군사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삼천리강토를 항구적으로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드는것은 북남선언리행에서 가장

선차적인 과제이며 북남협력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는것은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추동하고 그 덕을 온 겨레가 실질적으로 보게 하는 근본담보라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주의주장과 리념을 뒤로 미루고 권견과 오해의 좁은 울타리를 대담하게 터뜨리며 당파와 소속, 정견과 신앙, 편입을 초월하여 북남선언을 지지하는 세력이라면 모두가 뜻과 힘을 합쳐 선언리행에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토로하였다.

본사기자 김영진

## 《미국은 북미정상회담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

남조선의 민중당이 2일 대변인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2차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한》반도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이 1차북미정상회담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면서 《북의 선비행후보 보상을 고집하는 미국의 태도는 1차북미정상선언의 정신을 부정하는것》이라고 까뻐했다.

계속하여 북은 미국이 비핵화선제조치에 대한 상충조치를 취한다면 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

집하는 미국의 태도는 1차북미정상선언의 정신을 부정하는것》이라고 까뻐했다.

계속하여 북은 미국이 비핵화선제조치에 대한 상충조치를 취한다면 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

다는것까지도 신년사를 통해 밝혔다고 하면서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비핵화를 원한다면 제재완화를 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미국이 제재로 비핵화를 이룰수 있다는 망상부터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 남조선시민단체들 평화협정체결을 요구

남조선 《뉴시스》에 의하면 평화협정운동본부들 비롯한 시민단체성원들이 6일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주변에서 집회를 가지고 조선반도평화실현을 가로막는 미국을 규탄하였다.

그들은 미국이 조선반도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겨레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주장하는 미국대사관주변에서 집회를 가지고 조선반도평화실현을 가로막는 미국을 규탄하였다.

이러 참가자들은 시위행진을 벌였다.

본사기자







# 한편의 노래에 비낀 애국의 세계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관철하기 위한 새해진군길에 펼쳐나선 이 땅에 한편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다.

공화국을 상징하는 람홍색국기를 형상의 대상으로 하고 전체 인민의 애국의 감정을 훌륭히 반영한 노래 《우리의 국기》이다.

우리의 람홍색기발 창공높이 날릴케 바라보며 눈위는 심장 애국의 피로 뚫어라 거세한 펄럭임에 조국의 슬결 어리고 목숨처럼 소중한 기록에 인민의 음명실었네 사랑하리라 빛나는 우리의 국기를 나뭇겨다오 이 세상 다할 때까지

신년사와 함께 악보우에 노래가 대단히 좋다고, 전체 인민의 감정이 담긴 훌륭한 노래 창작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만족하게 생각한다는 그의 친필이 새겨진 노래 《우리의 국기》를 받아 안게 되었다.

사람들은 새해의 첫아침 온 나라 인민에게 이 노래를 안겨주신 그의 숭고한 뜻이 어려와 가슴 후더움을 금할수 없었다.

새해에 공화국은 자력갱생을 변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에서 혁명적 양양을 세차게 일으켜가고 있다.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판철을 위해 온 나라가 거대한 힘을 내뿜으며 분출하는 화산의 용암마

냥 뚫고 있다. 북변의 삼지연군건 설장으로부러 중산의 동을 우렁찬 전력생산기지를, 자립경제발전의 척추전신인 석탄공업부문을 이르기까지 일터마다에서 방대한 목표를 내걸고 신심도높이 공격전진에 나섰다.

이 모든것은 결코 순탄하게 진행되고있는것이 아니다.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고 앞길을 가로막으려는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책동은 악랄하다.

그러나 시련과 난관이 아무리 겹쌓여도 애국으로 불타는 인민이 있는 한 승리는 확정적인것이다.

그렇게 놓고볼 때 온몸이 뚫어 버지는 애국의 피가 그대로 시

어로 되지만 같은 노래 《우리의 국기》야말로 사회주의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무한한 긍지를 간직하고 새해진군길을 힘있게 다그쳐갈 인민의 애국열의를 불러일으키는 훌륭한 노래라고 할수 있다.

《우리의 람홍색기발 창공높이 날릴케 바라보며 눈위는 심장 애국의 피로 뚫어라》라는 노래의 첫구절을 보아도 알수 있듯이 창공높이 날리는 공화국기를 바라보며 애국의 마음을 한껏 안아보는 이 나라의 인민들이다.

김동현 금성트랙도르공장 직장장은 더없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부풀게하는 노래 《우리의 국기》를 누구나 즐겨 부르고있

는데 그것은 우리 인민의 강렬한 조국애를 진실하게 반영하고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노래가 많어도 이처럼 자기들의 심정을 꼭 담은 노래는 없을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느낌이 어찌 그 하나만의 가슴속에서만 울려나온것이라 하겠는가. 그가 과학자나 체육인이라 해도, 로동자나 농민이라 해도 노래 《우리의 국기》를 들으며 터치는 격정의 목소리는 하나와 같다. 누구나 이 노래를 부르면 목숨처럼 소중한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온몸이 달아오르고 이 노래가 울리는 곳마다에서 공화국국민의 존엄을 안고

조국의 부강변영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갈 열망이 불길처럼 타오른다.

인민들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데서 음악과 예술이 노는 역할을 깊이 통찰하고 새해 장엄한 진군길에 오른 인민들을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불러일으키는 우렁찬 음악모성을 울려주신 경에하는 원수님.

새해의 진군길에 울려 퍼지는 노래 《우리의 국기》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심장에 새겨안고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과감히 전진해나갈것을 바라는지와 자부심으로 온몸이 달아오르는 원수님의 불같은 애국의 호소를 새겨안은 전체 인민의 심장은 세차게 뚫어 버지고 있다.

정철 국가과학원 중앙광업연구소 소장은 노래 《우리의 국기》가 울리면 조국이 우리 과학자들이 부르는 소리같이 그 부름에 화답하는 심정으로 저도 모르게 따라부르게 된다고 하면서 공화국의 새한 펄럭임소리를 들으며 과학연구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업화속 서흥군 범안협동농장 분조장도 노래 《우리의 국기》는 람홍색기발 휘날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사회주의 내 조국을 쌀로써 빛내여갈 각오와 의지를 백배해준다고 말하였다. 온 나라 인민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애국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고 있다.

본사기자 홍범식

인민의 음명이 실려있고 모든 영광과 미래를 상징하는 공화국기를 대를 이어 지켜가며 영원히 사랑하리라 하는 전인민적감정을 폭넓고 환희롭게 구가하고있는 노래는 창작되어 나오자마자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삼시에 온 나라로 파급되어갔다.

인민배우인 리향숙 김원규명칭 음악종합대학 학부장은 《새해의 첫아침에 노래 《우리의 국기》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쿵 뛰고 불덩어리를 안은것 같았다.》고 흥분된 심정을 터놓았다. 노래 《우리의 국기》가 새해진군길에 펼쳐나선 온 나라 인민의 심금을 그렇듯 세차게 울려주고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뜻이 깊으면서도 주옥같은 시어와 박력있고 격정이 흘러넘치는 음악형상으로 하여 들을수록 더 듣고싶고 부를수록 더 부르 고싶은 국보적인 명곡이라는데만 이 노래의 사상정서적감화력파 그 무게가 있지 않다.

《우리의 국기》, 이 노래에 력사적인 신년사와 더불어 온 나라 인민에게 하고싶으신 절세위인의 심중의 세계가 담겨져있다고 말할수 있다.

이 노래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새해가 시작된 1월 1일이였다. 희망찬 새해의 첫아침 《로동신문》을 펼쳐든 사람들은 인민이 걸어갈 승리의 려정을 환히 밝혀주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 아무런 불편없이 마음껏 배운다

— 과학기술전당 장애자열람실에서 —

진민학습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꾸러진 과학기술전당으로는 오늘도 각계층 인민들이 찾아오고 있다. 그들속에는 장애자들도 있다. 과학기술전당에는 장애자들을 위해 전문적으로 봉사하는 열람실이 훌륭히 꾸러져 있다.

공화국의 장애자보호정책에 의하여 마련된 이곳 열람실에서 장애자들은 희망과 소절에 따라 여러 분야의 지식들을 습득하고 필요한 과학기술자료들도 열람하고 있다.

장애자열람실에서 우리와 만난 리성관사서는 《장애자들이 자기 알고싶어하는 자료들을 열람할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말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과학기술전당에는 장애자들이 쉽게 열람실로 오고갈수 있도록 출입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그들을 위한 열람실이 따로 꾸러져있다고 한다.

장애자전용설비들이 그흔히 갖추어져있는 이곳 열람실에서 장

애자들이 깊은 사색과 탐구속에 자료열람을 하고있었다.

맹인들이 리용하는 여러 분야의 책들을 구비한 서가를 비롯하여 장애자들이 편리하게 필요한 자료들을 열람할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었다.

이곳에는 장애자들이 사소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특별히 제작하여 설치한 의자들도 놓여 있는데 장애자들이 등받이와 접이식 탁이 달린 의자에 편안히 앉아 필요한 도서를 검색하고있었다.

장애자들을 위한 학습공간을 특색있게 갖추어놓은 열람실로 장애자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면서 그들가운데는 국가망에 가입하여 원격교육대학을 다니는 장애자들도 있다고 리성관사서는 말하였다.

이곳 열람실에서 우리와 만난 리선장애자기능공학교 학생들인 리철국과 박남수는 국가에서 장애자들에게 보다 좋은 열람조건을 마련해주어 마음껏 공부할수

있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의학상식에 대한 자료를 열람하고있는 로국남청년도 만나보았다.

선천적으로 말을 할수 없는 그였지만 안마기술을 소유하고싶어 이곳 열람실에서 안마기술에 대한 학습을 하고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장애자들을 위한 보 호정책이 실시되고있는 공화국의 품속에서 자기의 꿈과 희망을 꽃피워가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볼수 있었다. 그리고 더 많이 배워 나라의 부강변영을 이룩하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려는 장애자들의 마음속결의도 읽을수 있었다.

본사기자 강류성

## 자력갱생을 변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공화국인민들이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새해전투에 떨쳐나섰다.

《필승의 신심과 용기가 용솟음친다.》,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올해에 석탄산출을 더 높이 쌓아 우리 국가를 받들어 나가겠다.》, 《대학을 세계의 일류급대학들과 당당히 겨룰수 있는 교육과 과학연구의 중심기지, 국제학술교류의 거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올해에 농사를 잘 지어 꼭 다수확단위의 영예를 지니도록 하겠다.》...

비록 일리는 다르지만 이 땅의 남너로소가 저마다 터치는 목소리들에서는 하나의 공통점이 느껴진다. 바로 사회주의의 더 밝은 앞날을 자력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힘과 토대, 우리 식의 투쟁방략과 창조방식이 있다는 그것이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온갖 난관을 물리치고 살아나가는

것이 자력갱생이다.

돌이켜보면 자력갱생은 공화국의 발전과정에서 언제나 투쟁의 기치가 되고 비약의 원동력으로 되어왔다.

자력갱생하면 제일먼저 떠오르는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이다. 1930년대초 당시 소왕청유격군 거지에는 《마흔병기창》이라고 부르는 자그마한 철공소가 있었다. 밀림속의 이 병기창에서 권총과 보총을 비롯한 총도 수리하고 폭약까지도 척척 만들어냈다.

항일선열들이 백두의 설한봉속에서 안아온 자력갱생의 불씨가 해방후 새 민주조선건설의 불화를 타올랐고 동방일각에서 전설의 천리마를 날게 한 원동력으로 되었다. 평범한 수리거지에 지나지 않았던 자그마한 공장에서 만들어낸 《붉은기1》호의 경쾌한 자력소리가 조선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내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 한 어느 한 나라의 대사의 예언을 보 기종게 짓눌러버리었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자기 힘으로 발전소들을 일떠세우고 공장들을 돌리었으며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강위력한 국방력을 다져놓은 공화국인민이다.

지난해에도 이 땅에서는 자력갱생의 창조대진이 나라의 이르 는 곳마다에서 힘차게 벌어져 놀라운 기적들이 이루어졌다.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전력생산능력이 훨씬 늘어나고 김철과 황철을 비롯한 금속공장들에서 주체화의 성과가 확대되었 으며 화학공업의 자립적도태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었다.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만들어낸 긍지와 보람으로 보기 만 해도 호프찬 각종 물건기계들과 질높은 경공업제품들이 쏟아져나와 인민들을 기쁘게 하였다.

석탄공업부에서 자립경제의 생명을 지켜 결사적인 생산투쟁을 벌이고 불리한 일기조건에서 도 다수확을 이룩한 단위들과 농장원들이 수많은 배출되었다.

군수공업부에서 여러가지 능

기계와 건설기계, 협동품들과 인민소비품들을 생산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였다.

또한 사회주의조선의 역센 기상과 자립경제의 막강한 잠재력을 현실로 과시한 방대한 대건설 사업들이 붐이 크게 전개되었다.

결코 조건이 좋아서도 아니었다.

공화국에 대한 극악무도한 제재책동이 계속되고있는데도 극도의 고연원상까지 나라나 매우 어렵고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그에서도 이룩한 값진 성과들이다.

그 모든 기적과 승리를 안아온 근본비결은 령도자의 신념과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며 창조와 건설을 위해 산악같이 일떠선 공화국인민들의 불굴의 정신력이다.

자력갱생이라는 변영의 보검이 있기에 공화국인민들은 주저도, 담보도 모르고 앞으로만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밝아온 이 한해도 락관에 넘쳐 승리를 내다보고 있다.

본사기자 박철남





## 인민들이 문명과락을 누릴수 있게

건축물은 해당 사회의 물질적 및 정신문화적재부로 되고있다. 건축물은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전면모를 직관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몇해사이에 공화국에서는 세인을 경탄시키는 건설의 대변영기가 펼쳐지고 있다.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유류 아동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교육자살림집들을 비롯하여 인민의 지향과 요구, 미감에 맞

는 창조물들이 훌륭히 일떠서 인민들이 문명한 생활을 누리고 행복의 웃음소리가 나날이 높아가고있다.

인민들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모되어가고있는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있다.

새해에 들어와서도 공화국에서는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거창한 대건설사업이 통이 크게 벌어지고있다.

삼지연군을 산간문화도시로, 새해에 들어와서도 공화국에서는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거창한 대건설사업이 통이 크게 벌어지고있다.

사실 다른 나라들같은 이미 열백번도 더 손들고 나

갈마해안관광지부와 새로운 관광지구를 비롯한 대건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기 위한 사업들이 계속 힘있게 진행되고있다.

건축설계와 건설공법을 혁신하고 마감건설의 국산화와 질적발전을 위한 사업들도 적극 추진되어 많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공화국이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위한 수많은 창조물들을 일떠세우고있는것은 조건이 특별히 좋거나 여유가 있고 풍족하여서가 아니다.

사실 다른 나라들같은 이미 열백번도 더 손들고 나

았을 적대세력들의 전례없는 제재와 압박이 날로 가중되고있는 오늘 공화국이 자체의 힘, 자체의 자원과 기술로 수많은 건축물들을 일떠세운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공화국에서는 시련이 앞을 막아나섰지만 인민들을 사회주의문명의 최고봉에 올려세우고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해 모든것을 다하였다.

인민을 위한 대건설사업들이 립체적으로 전개됨으로써 시련속에서도 끄떡없고 멈춤이 없으며 더욱 노도와 같이 펼쳐져어나 승승장

구해나가는 자립경제의 막강한 잠재력이 현실로 파시되었다.

근로하는 인민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화국에서는 건축물의 창조자도 인민대중이고 그 향유자도 다름아닌 인민대중이다.

올해에도 공화국이 가는 앞길에는 시련과 장애가 가로놓여있다. 그러나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공화국에서는 올해에도 세인을 놀래우는 더 큰 건설의 기적들이 창조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철

## 은반우에 넘치는 희열과 랑만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사람들 누구나 즐겨찾는 인민야외빙상장이 자리잡고있다.

드넓은 빙상홀에 라원형의 얼음판과 스케트 내추는 곳, 휴게실, 의료실, 방송실 등 봉사시설들이 그즈음 갖추어져있는 이곳 야외빙상장은 삼복철에도 얼음이 얼게 되어있어 계절에 관계없이 각 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찾아오고있다.

인민야외빙상장이 문을 연 때로부터 오늘까지 수십만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는 사실만 놓고도 스케트타기에 대한 사람들의 열기가 얼마나 높은가를 잘 알수 있다.

얼마전 이곳을 찾은 우리가 야외빙상장안에 들어서니 수많은 사람들이 스케트를 타느라 여념이 없었다.

여기서는 어른, 아이가 따로 없는듯 누구나 신바람나게 스케트를 타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 그 가운데는 제법 스케트선수처럼 능숙한 동작으로 얼음판을 뒹굴듯 지치는 축들이 있

는가 하면 보급원들의 방조속에 기초동작을 익혀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곳에서는 스케트를 처음 타는 사람들을 위해 보급원들이 스케트타기 기초동작들을 배워주고있었다.

스케트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보급원의 방조속에 중심잡고 걸기, 지지기, 밀어차기 등 기초동작들을 익혀가면서 숙련하는가 하면 보조기구를 리용하여 지지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스케트타기에서는 중심잡기가 기본이라고 한다.

평양시 동대원구역에서 왔다는 리철석(36살)은 눈에는 익고 손에는 설다고 생각대로 중심잡기가 잘 되지 않는다며 머리를 긁적거렸다.

겨우 중심을 잡으며 가까스로 나가던 사람들은 대어섯살쯤 나보이는 아이들이 귀엽게 재롱을 부리며 스케트를 타는 모습을 부러워듯 바라보며 혀를 내둘렀다.

그런가 하면 60형춘, 90형갑을 노래하듯 열심히 스케트를 타는 늙은이들도 볼수

있었다.

이곳에서 우리와 만난 리향미반장은 야외빙상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보다 훌륭한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성의를 다하고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스케트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보조기제도 만들고 스케트가 고장나면 제때에 수리하여 봉사함으로써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랑만을 더해주고있는 이곳 종업원들이었다.

얼음정비차가 일상적으로 얼음판을 매끈하게 닦아주어 매끈도와 균기에 있어서 나무랄데 없는 얼음판 위에서 신바람나게 스케트를 타는 사람들을 보느라 한번 타보고싶은 욕망이 절로 나왔다.

창유리를 사이에 두고 밖에서는 심한 추위가 강산을 얼기건만 인민야외빙상장에서는 스케트를 타며 시간가는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 달아오른 열기가 식을줄 몰랐다.

본사기자 김진혁



겨울철에 장갑을 끼는 기 본목적은 손이 얼지 않도록 해주는 데 있다.

추운 조건에서 손가락의 피부온도가 내려가면 손가락에 동통이 오고 손가락관절들이 굳어지면 손가락이 점차 떨어질 수 있다. 결국 손가락들을 제대로 놀릴수 없게 된다.

이것을 막자면 장갑을 껴야 하는데 장갑은 손가락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있어야 보온이 잘된다.

장갑은 또한 옷차림에 어울리게 색깔을 잘 선택해야 한다. 옷색깔과 어울리지 않으면 옷차림의 미적효과를 볼수 없다.

겨울철에는 신발과 양말 역시 매우 중요하다. 생리적 으로 볼 때 발이 차면 내장에 영향을 주어 위아프과 허리아픔 특히 녀성들인 경우에는 여러가지 생리적질병들 들이 굳어지면 손가락이 점차 떨어질 수 있다. 결국 손가락들을 제대로 놀릴수 없게 된다.

이것을 막자면 장갑을 껴야 하는데 장갑은 손가락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있어야 보온이 잘된다.

장갑은 또한 옷차림에 어울리게 색깔을 잘 선택해야 한다. 옷색깔과 어울리지 않으면 옷차림의 미적효과를 볼수 없다.

겨울철에는 신발과 양말 역시 매우 중요하다. 생리적 으로 볼 때 발이 차면 내장에 영향을 주어 위아프과 허리아픔 특히 녀성들인 경우에는 여러가지 생리적질병들 들이 굳어지면 손가락이 점차 떨어질 수 있다. 결국 손가락들을 제대로 놀릴수 없게 된다.

이것을 막자면 장갑을 껴야 하는데 장갑은 손가락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있어야 보온이 잘된다.

장갑은 또한 옷차림에 어울리게 색깔을 잘 선택해야 한다. 옷색깔과 어울리지 않으면 옷차림의 미적효과를 볼수 없다.

### 사화

## 개성고추장 (3)

글 전철호, 그림 리성일

《거 참, 별맛이다.》

언제 아팠더냐 하고 왼손우에 손바닥만 한 부루임을 서너일 걸쳐놓고 그우에 조밥을 보기 좋게 한술갈 떠놓은 다음 고추가루를 친 된장을 문든 시할아버지는 그것을 쫑쫑 꾸러 크게 벌린 입에 넣었다. 그 모습은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군침이 꿀꺽 삼켜지게 하였다.

아침밥을 맛있게 먹은 시할아버지는 머리를 기웃거리며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거 참, 조화는 조화다. 같은 부루쌈에, 같은 조밥에, 같은 된장에 고추가루를 친것밖에 없는데 이렇게도 맛이 달라지다니...》

시할아버지는 아침밥도 점심밥도 한그릇을 다 비웠다.

장씨는 날아갈것만 같았다. 어쩌다 만들어올린 수단같은 별식도 절반나마 남겼던 시할아버님이 이번에는 밥 한그릇을 다 내시었다는걸 시골에 나가있는 남편과 목화밭을 지키는 시아버님이 안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입맛을 돌린 시할아버지는 병석에서 일어나 왜놈들이 우리 나라를 넘겨다보고있는데 어서 빨리 궁술을 꿰는이들한테 넘겨주어야 하겠다면서 자납산의 활터에까지 씌영씌영 올라갔다.

가을이 왔다. 시할아버지와 시아버지가 마주했던 곁상을 들고 나오는 장씨의 마음은 또다시 무거워졌다.

시할아버지가 그렇게 달게 잡수시던 고추가루를 친 된장에는 술갈자리도 나지 않았다.

부엌에 따라나온 시할머니는 장씨의 귀에 대고 늙은이의 입맛은 입쓰리하는 녀인들처럼 까다로우니 너무 삼심말라고 말하는것이였다.

시할아버지는 또 자리에 누웠다. 하루종일 물레를 돌리는 장씨의 마음은 허전하기만 하였다.

시할머니 말씀대로 늙은이의 입맛은 어찌할수 없단 말인가. 한집안의 기둥이라는 남편이 풀이나 팔러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가난한 살림에서 량반부자네 집들처럼 고기붙이 같은것은 꿈도 꿀수 없다. 가난뱅이들이 누구나 다 손쉽게 만들어서 고기반찬처럼 맛있게 먹을수 있는 그런 반찬은 정녕 만들어낼수 없단 말인가.

그런 반찬만 있다면 시할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활터에도 나가실수 있을것이다.

장씨는 이 한가지 생각으로 어떻게 일이 오고 가는지 알수가 없었다.

설을 며칠 앞둔 어느날이였다. 남편까지 시골에서 돌아오니 다시 열한식구가 북작북작 풀었다.

시할머니와 시어머니는 설날만이라도 아이들한테 먹이겠다고 옛을 달이느라 아침부터 망질을 한다. 보리길금가루를 받는다. 옛죽을 쏘다며 분주히 돌아갔다.

장씨가 집어든들이 설날에 입을 옷가지들에 풀을 먹여 말려서 다림질을 마치고나니 해는 벌써 서산에 기울고있었다.

저녁밥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방을 나섰 장씨는 마

루에 놓인 질동이에 눈길이 끌렸다. 동이속에서는 옛죽이 삭고있었다.

분숙 길금가루를 된장에 치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길금가루만 들어가면 옛죽이 달달해지고 술밥도 들근해진다. 장씨는 앞치마를 찾아 먹고 뜨락에서 망들을 담고있는 시할머니한테로 다가갔다.

《할머니, 혹시 길금가루 길금가루를 된장에 친적이 있냐고 물었다. 내 언젠가 메주를 쏠적에 단맛을 더 낼수 없을까 해서 길금가루를 친적이 있었어. 그런데 재미를 보지 못했더니. 이젠 그런 생각을 제발 말라. 우리 살림에 그만큼 밥상을 차려줬으면 량반부자들을 부러워하겠느냐.》

장씨는 한숨이 나가는걸 얼른 앞치마를 들어 가리우고



를 된장에 친적이 있나니까?》

《또 그 생각이냐? 할아버지 때문에 너무 근심말라. 근심면 여한다고 허더라. 그러다 병날라.》

《할머니...》

《이런 망녕 봤나. 금방

고 딱반죽에 길금가루를 치고 소금과 고추가루를 섞어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분명 길금가루는 찹기가 센 딱일 식라도 물먹은 진흙덩이처럼 삭아버렸고 이젠 영처럼 달아질것이다. 여기에 짹짹하고 배만큼 맛이 보태지고 그와 함께 새빨갳게 눈맛이 난다면 그게 좋은 반찬이 아닐까.

《밥라는 내가 나누나.》

시할머니가 부엌문을 열며 하는 소리였다.

아빠씨!

장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급히 솥뚜껑을 열었다. 밥판내에 물은 끓고 있었다. 시집와서 이날 이따까지 이런 일은 한번도 없었는데 이게 무슨 변이람.

《아, 이 할미가 잘못했다. 안일을 뚱뚱 아가한테 맡겨놓고...》

시할머니가 장씨의 손을 잡고 혀를 차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서며 《제가 잘못했나이다. 주책없이 늙은이를 내며 주경만 했으니...》 하고 말했다.

《할머니, 어머니, 그런 말씀일랑 마시와요. 제가 그만 중상맞게 댜생각을 하다가...》

시할머니는 밥주걱을 장씨의 손에 들려주며 말했다. 《네. 술치기 어째서? 어서 저녁을 차리자꾸나.》

### 인삼수염뿌리의 약효능

인삼수염뿌리는 인삼을 가공하고 남은 잔뿌리인데 백삼수염뿌리와 홍삼수염뿌리 두가지로 나눈다.

인삼의 중요한 활성성분은 인삼사포닌이다. 연구에 의하면 홍삼의 기본뿌리, 결뿌리, 수염뿌리에는 9가지 이상의 사포닌이 들어있는데 그 함량에서 수염뿌리가 기본뿌리나 결뿌리보다 많다고 한다.

문헌자료에 의하면 백삼의 사포닌함유량은 2.1%이고 백삼수염뿌리의 사포닌함유량은 9.25%라고 한다.

인삼의 사포닌은 주로 주

피와 피층에 있는데 기본뿌리의 주피는 총중량의 5.2%, 피층은 31.5%를 차지한다.

목적부위와 진수부위의 사포닌함유량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다. 그런데 수염뿌리의 목적부위와 진수부위의 중량은 작지만 단위중량당 주피와 피층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염뿌리의 사포닌함유량은 기본뿌리보다 많다고 한다.

수염뿌리야말로 인삼의 매우 좋은 약용부위라고 말할수 있다.

본사기자

### 유모아

## 《네 아비나 안녕해라》

옛날 일차무식인 어떤 사람에게 소꿉친구가 오래간만에 찾아와 《아버님께서는 안녕하십니까?》하고 물고는 회포를 나누다가 돌아갔다.

무식쟁이는 《안녕하십니까?》라는 말뜻을 도무지 이해할수 없어 친구가 돌아간 다음 마을의 글자는 사람에게 그 무슨 소리인가고 물었다.

원래 장난기가 심한 그 사람은 《그 안녕이라는 소리는 육중에서도 제일 지독한 욕일세.》하고 짐짓 거짓말을 하였다.

이 말을 들은 무식쟁이는

성이 머리꼭대기까지 치밀어 올라 그 즉시 친구의 집으로 달려가 문밖에서 한바탕 욕설을 퍼부었다.

《아, 이놈의 자식아, 네 아비나 안녕해라! 우리 아버지는 안녕 안할란다. 안녕한 애비를 둔 게 같은 자식! 이 자식아, 왜 꼴이 나니? 네가 먼곳에 있는 우리 집에게까지 찾아와 우리 아버지보고 안녕하라고? 우리 아버지는 안녕하지 않을터이니 네 애비나 안녕해라!》

그리고는 속이 후련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본사기자